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정무국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정무국회의가 8월 5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에 참가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었다.

정무국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에 새로운 부서를 내올데 대한 기구문제를 검토심의 하였으며 당안의 간부 사업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에 대하여 연구 협의하였었다.



결정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긴급조치들을 취할것을 해당 부문에 지시하였었다.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은 이밖에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실무적문제들을 토의 하고 그 집행을 승인 하였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회의에서 토의된 문제들을 결론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성원들이 무한한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담당한 부문의 사업들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며 당중앙의 결정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한 올바른 사업방향과 중심을 유지하고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어 모든 사업을 당중앙의 사상과 방침적요구에 맞게

해당한 대책에 대하여 합의하였었다.

실태보고서를 료해하고 봉쇄지역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식량과 생활보장금을 하시었다.

회의에서는 또한 정부기관의 주요직제 간부들의 사업정형에 대하여 평가하고

회의에서는 다음으로 국가최대비상체제의 요구에 따라 완전봉쇄된 개성시의 방역형편과

혁명적으로 조직전개해나갈데 대하여 강조 하시었다. 당중앙이 특별지원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일대의 큰물피해상황을 현지에서 료해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일대의 큰물 피해상황을 현지에서 료해하시었다.

최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련일 내린 많은 비와 폭우에 의해 은파군 대청리지역에서 물길제방이 터지면서 단층살림집 730여동과 논 600여 정보가 침수되고 179동의 살림집이 무너지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은파군 대청리 일대의 많은 살림집들과 농경지가 큰물로 침수되었다는 상황을

보고받으시고 피해현장에 나가시어 실태를 직접 료해하시면서 피해지역 복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은파군 주민들을 모두 사전에 안전한 지대로 소개시켜 인명피해는 없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정말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사회안전 기관을 비롯한 군급지도적기관들에서 집을 잃은 주민들을 군당위원회, 군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사무공간들과 공공건물들, 개인세대들에 분속 시키고 안정시키며 위로해주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할데 대하여 강조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무위원장 예비량곡을 해제하여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세대별로 공급해주기 위한 문건을 제기할데 대하여 해당 부문에 지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침구류와 생활용품, 의약품 등 필수물자들을 시급히 보장해주어 빨리 안착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 사업을 당중앙위원회 부서들과 본부 가족세대들이 전적으로 맡아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은파군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와 인민무력성의 간부들로 피해복구사업지휘부를

조직하며 지휘부는 일단 현지에서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 하면서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재와 력량편성을 정확히 타산하여 보고 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중앙의 설계력량을 파견하여 큰물피해를 입은 은파군 농장마을 800세대를 본보기로 새로 건설하기 위한 작전을 짜고들어 공사를 빠른 기간내에 최상의 수준에서 끝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에도 피해복구건설사업에 군대를 동원 할것을 결심하였다고 하시면서 인민 군대에서 필요한 력량을 편성하여 긴급

이동전개시키며 군내인민들과 함께 파괴된 살림집과 도로, 지대정리사업을 선행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피해복구 건설사업에 필요한 세멘트를 비롯한 공사용자재보장대책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타산된 소요량에 따라 국무위원장 전략예비물자를 해제하여 보장할데 대하여 지시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성, 중앙기관들에서 은파군피해복구건설사업과 관련한 당의 의도를 똑바로 알고 적극적으로 협조할것을 호소하시었다.

본사기자

이 땅의 평화는 어떻게 수호되는가

침략이 없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은 인류의 한결같은 념원이요 지향이다. 평화와 있어야 인간의 삶도 지고 발전과 번영도 이룩할 수 있다.

하지만 평화는 바란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류는 평화를 갈망했지만 홀려오는 역사는 무수한 전쟁들로 얼룩져왔다. 평화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 민족처럼 그것을 가장 강렬히 열망해온 민족도 흔치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민족은 임진왜란 전쟁을 비롯하여 외세의 끊임없는 침입과 전란을 겪어왔다.

지난 세기 50년대 초에는 외세에 의해 3년간의 참혹한 전쟁도 겪었다.

악독한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반항해온 민족의 의지를 보여 주었고, 공장의 주인이 되어 건국의 마지못한 울며 울러갈 때 공화국의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전쟁의 무서운 참화가 들춰지지리라고 생각지 못했다. 외세가 강요한 전쟁의 불길에 휩싸여 평화롭던 도시와 마을들이 제더미로 화하고 수많은 무고한 인민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어린이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다.

역사는 평화가 바란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너무도 생동하게 깨우쳐주고 있다.

평화는 또한 구절한다고 해서, 무엇을 양보한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편 양보하면 두 번, 세 번, 나아가서 모든 것을 양보해야 하는 것이 맹목적인 국제관계 현실이다. 제국주의 침략 세력에게 양보한 대가로 차례지는 것은 결국 주권의 상실이고 노예와 다름없는 삶

이다.

오늘 적대세력들이 세기와 년대를 이어 조선에 대해 감행하고있는 비열한 적대사업 실행동은 어느 특정한 분야나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와 경제, 군사, 사상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다.

북침을 노린 전쟁연습과 무력증강소동은 해마다 그칠새가 없고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기 위한 제재와 봉쇄책동도 공화국이 강건된 이래 오늘까지도 가장 가혹하게 감행되고 있다. 공화국인민들의 정신을 무장해제시키고 국가와 인민을 갈라놓으려고 벌리는 사상문화적 침투책동도 그치지 않고 악랄하고 집요하다. 이 모든 책동의 밑바탕에 놓여있는 것은 공화국을 어떻게 하나 굴복시키고 무너뜨리자는 것이다.

적대세력들이 자주기의 기치를 끝까지 들고 나아가는 공화국을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면서도 감히 어찌지 못하고있는 것은 전적으로 공화국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전쟁을 막는 그 힘, 자위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져주신 것은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쌓으신 커다란 업적이다.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강철의 령장인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지난 세기 60년대에 조성된 국제정세와 조국의 먼 앞날까지 내다보시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탁월한 로선을 내놓으셨다. 그리고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전도 내놓으시어 온 나라를 그 어떤 침략자도 일격에 쳐몰리칠 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드셨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치시고 나라의 군력을 다지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기울이셨다.

동유럽사회주의 나라들의 련이든 붕괴와 적대세력들의 침략책동, 여러해째 계속된 큰물피해로 하여 류례없이 간고하고 어려웠던 그때 그이께서는 사랑이 없는 살수 있어도 총알이 없는 살수 없다고 하시면서 선군정치의 천만리길을 헤쳐가시었으며 그 길에서 조국도, 사회주의도, 인민의 운명도 지켜지게 되었다.

오늘 공화국의 군력은 더욱더 장성강화되었다.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위력이 최상의 경지에 이르렀고 국방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한층 강화되었으며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는 비상히 높아졌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강군년됨, 애국년됨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공화국인민 누구나 군력강화를 위해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를 잊지 못하고 있다.

조국수호, 군력강화의 낮과 밤을 무수히 이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화신같은 탄탄대로가 아니었다. 강력한 국가건설을 위하여,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빛나게 실현하자면 강력한 국방력이 믿음직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그를 계속 강화해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국방건설목표이라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그 위력을 다게 산해될 수도 없는 공화국의 주체관들이 만리대풍으로 련속 치달아올랐으며 우리 겨레가 세세년년 바라오



던 부국강병의 념원을 빛나게 실현되게 되었다.

자위적군력을 최대로 강화하여 국가의 자주권과 존엄,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이 땅위에 영원한 평화의 푸른 하늘을 펼쳐주신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와 인민, 력사와 세계앞에 쌓아올리신 하늘에 닿을 업적이다.

최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고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군력을 가지셨기에 공화국은 오떡없고 이 땅의 평화는 오떡도 래일도 굳건히 수호되게 되는 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 ◎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지금으로부터 세해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서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새로 꾸린 이불생산공장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경공업공장들에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인민들의 마음에 들게 질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다짐이불누빔기를 거쳐 내려오는 비단이 불친의 색이 우아하고 고상하다고 하시었다. 그리고 천과 솜이 다 국산화

이 평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이불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하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봉사에서 진실성과 편리성을

네 해전 3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한 종합봉사기지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풍치수려한 보통강기슭에 미래상점과 대청되게 건설된 종합적이며 다기능적인 봉사기지를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이어 그이께서는 봉사의

본사기자

세상을 둘러보면 현대문명과 억대의 재부를 자랑하는 나라들이 많지만 그것은 모두 투쟁전들의 소유로 되고 있다.

하지만 공화국에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있다. 그것은 모든 문명과 행복의 주인공이 다름아닌 근로하는 인민대중이라는 것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구현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가 바로 공화국의 사회주의이다.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근본핵은 인민에 대한 열렬한 애정이며 그것은 인민대중에 대한 최대의 사랑과 헌신의 정신으로 되고 있다.

돌아보면 인류력사에서 인민관의 숭고한 정지를 개척하신 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민관은 지난날 천대와 멸시의 대명사로 불리우던 인민을 하늘로 내세우고 인민의 존엄을 최절정에 올려세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사랑의 정치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신 아버지수령님의 뜻, 인민이 바란다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가고계신다.

언제인가 외국인의 한 인터넷홈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실리었다.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인민에게 거머쥐어 인민의 락원을 가꾸고계신다. 조상을 위한 일의 중차대한 사업으로 진행되고있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치시는 인민사랑의 정치의 빛나는 결실이다.

세상에 돌도 없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책에서가 아니라 실생활을 통하여 깊이 체득하고있기에 공화국인민은 국가와 제도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고있으며 그것을 빛내이는 길에 자신들의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한한 사랑, 이것을 떠나 조선식사회주의의 불패의 위력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김주혁



에로부터 평양은 산천경계가 뛰어나게 아름다운 곳으로서 반만년의 유구한 우리 민족사가 시작된 민족의 발상지, 민족문화의 중심지이며 조선민족의 자랑스러운 성지이다.

평양은 단군이 세운 고조선의 수도였고 고구려의 장수왕때인 427년에 기본수도를 국내성으로부터 평양성으로 옮기면서 수백년간 천년강국 고구려의 수도로 이름을 떨치었다.

이러한 평양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나라를 찾아주시고 인민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때로부터 공화국의 수도로서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을 걸어왔다.

공화국의 역사는 70여년, 반만년의 민족사에 비하면 너무도 짧은 한순간에 불과하지만 이 나날에 평양은 천지개벽의 새 모습들을 펼쳐왔다.

평양전변의 력사에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고한 환경생구원태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애민헌신이 어려웠다.

해방후 몸소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시며 자연개조사업의 첫 봉화를 지퍼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화의 불길속에서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를 지도해주시었으며 전후에는 몸소 평양시 복구위원회 위원장이 되시어 수도건설을 지도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평양을 전쟁전보다 더 아름답고 웅장하고 현대적인 도시로 건설하여 건설에서도 조선사람의 본래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도에 정부청사가 아니라 인민들의 살림집부터 먼저 일떠세우도록 하시었다.

그 나날 때로는 이슬에 젖은 풀을 헤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몸소 배를 타고고 대동강을 오르내리시며 명당자리들에 인민의 집터를 잡아주시었고 평양에 새 집들이 줄줄이 일떠서게 된 그때에는 새로 지은 집들이 인민들의 마음에 들었는가 하는 생

각으로도 마음을 놓지 못하신 아버지수령님이다.

모란봉극장, 평양대극장, 인민문화궁전, 평양학생소년궁전 등 평양의 이르는 곳마다에 높이 솟은 기념비적 건축물들은 결코 웅장 화려한 건축미만으로 그토록 사람들의 부러움과 경탄을 자아내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인민의 꿈과 리상, 지향의 깃들여있고 인민들에게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고있는 것으로 하여 더욱 아름답다 운것이다.

각으로도 마음 놓지 못하신 아버지수령님이다.

모란봉극장, 평양대극장, 인민문화궁전, 평양학생소년궁전 등 평양의 이르는 곳마다에 높이 솟은 기념비적 건축물들은 결코 웅장 화려한 건축미만으로 그토록 사람들의 부러움과 경탄을 자아내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인민의 꿈과 리상, 지향의 깃들여있고 인민들에게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고있는 것으로 하여 더욱 아름답다 운것이다.

전변의 력사가 펼쳐진 평양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천리마대고조시기 건설자들은 수천세대분의 자재와 자금, 로력으로 3~4년이 걸려야 지을수 있던 2만여세대의 주택을 단 한해 사이에 건설하는 기적의 속도, 14분만에 한세대씩 살림집을 조립하는 평양속도를 창조하여 세상을 놀래웠다.

이때부터 평양속도는 천리마속도와 함께 공화국의 눈부신 발전속도를 표현하는 대명사로 불리우게 되었다.

평양을 인민의 수도로, 웅장화하여 도시로 건설하는 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구상이고 의지였다.

언제인가 한 일군과 자리를 함께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나는 평양시건설에서도 속도전을 벌려 기적을 창조하고 우리 평양의 력사에 평양영기를 기록하려고 한다고, 수령님께서 구상하신 대상을 포함하여 수십개의 기념비적 건축물을 일떠세우면 평양은 말 그대로 세계적인 도시로 될 것이라고 하시었다.

만수대예숙장과 락원거리건설로 평양변영기의 서막을 여신 그이께서는 수도 중심부에 인민대학당과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대동강변의 문수지구에 웅근 하나의 도시와 맞닿는 문수거리가 일떠서고 대חק거리, 창광거리(2개단), 천리마거리(2개단) 등이 새로 건설되었으며 시내도처에 20층, 30층, 40층의 고층주력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랐다.

현대적인 거리들과 배합되어 창광원, 빙산관, 청류관, 평양고려호텔, 봉화예숙극장 등 현대적건축물들이 일떠서고 평양지하철도가 훌륭히 건설되었으며 만경대유류장과 물놀이장, 대성산유류장 등이 건설되었다.

80년대속도창조운동의 불길속에 수만세대의 살림집들과 만경대학학생소년궁전, 청년호텔을 비롯한 기념비적 건축물들, 봉사망들이 들어앉은 광복거리와 대규모체육촌인 청춘거리가 현대적으로 건설되었다. 그리고 5월1일경기장, 동평양대극장, 청년중앙회관 등이 줄지어 일떠서 평양의 모습은 완전히 변모되었다.

주체78(1989)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평양전변의 력사를 감회깊이

추억하시면서 세계 110여개 나라의 수도건설력사를 놓고 보아도 15년동안에 여러개의 현대적인 거리들과 수백개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운 레가 없다고, 평양변영기의 나날에 우리 인민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적인 속도를 창조하였다고 하시었다.

오늘 평양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펼쳐주신 건설의 대변영기속에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공화국의 기상을 안고 청춘도시로 더욱 훌륭히 전변추적하시면서 세계 110여개 나라의 수도건설력사를 놓고 보아도 15년동안에 여러개의 현대적인 거리들과 수백개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운 레가 없다고, 평양변영기의 나날에 우리 인민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적인 속도를 창조하였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평양의 이르는 곳마다에 류형원과 인민야외빙상장, 온화과학자거리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문수물놀이장, 미림송마구락부, 옥류야동병원, 류경치과병원,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 등 수많은 창조물들이 즐비하게 일떠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 3월 평양종합병원건설 착공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최근에 평양시에 안과병원과 치과병원을 비롯한 전문병원들과 아동병원도 현대적으로 일떠세웠지만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수 없으며 더 높은 성과로 포부에 비해볼 때 큰 산속의 모래알에 불과하다고 하시면서 평양시안에서 명당자리인 이곳에 우리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종합병원 이 크게 건설되는것을 아시면 아마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제일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인민들도 남다른 로소모두가 다 좋아할것이라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평양변영기의 최전성기를 펼쳐온 벅찬 나날을 통하여 인민은 그이시야말로 가장 로속하고 세련된 창조물의 거장, 걸출한 위인이심을 더욱 심장깊이 공감하였다.

공화국인민은 수도건설의 새 력사를 펼쳐서 평양을 살기 좋고 아름다운 인민의 도시로 건설하신 절세위인들의 하늘같은 은덕, 불멸의 업적을 세세년년 길이 전해갈것이다.

엄성룡

매곡과 흙모

한없이 겸허하신분

얼마전에 진행된 제6차 전국 로병대회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전국의 로병들을 《존경하는 로병 동지들》이라고 자부하며 따뜻이 불러주시고 깊이 머리숙여 인사하시는 모습은 모두를 감동시켰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사를 받으며 대회에 참가한 전병로병들도 고마움과 격정에 저마다 눈시울을 적시었다. 전병로병들을 위해 이처럼 성대한 국가적행사를 조직해주시고 몸소 참석하시어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주시니 누구인들 가슴벅차이지 않을수 있으랴.

인민들에게 한없이 겸허하신 원수님의 모습은 공화국인민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낮은 모습으로 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3년전 새해를 맞으며 하신 그의 말씀은 지금도 사람들의 귀에 생생히 울려오고있다.

... 또 한해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서고보니 나를 굳게 믿어주고 한 마음한뜻으로 열렬히 지지해주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히 더 높이 떠받들수 있겠는가 하는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워진다.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지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속에 지난 한해를 보냈는데 올해에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 할 결심을 가다듬게 된다. ... 참된 겸손성은 모든 미덕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언제나 인민을 하늘로 떠받치고 내세우시면서 자신을 무한히 낮추시고 자그마한 특전과 특혜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인민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생활하시는 분이기때문에 그이께서 가시는 곳마다에서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숭엄한 화복이 펼쳐지고있는것이다. 어느 한 과학자유양소에서 있는 일이다.

몇해전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자들이 꾸려놓은 포도원휴식터에도 들리시었다. 세번째 휴식터에 이르시어 의자들을 빙 둘러보시던 그이께서는 보기에 다른 의자들보다 풀잎이 더 있어보이는 한 의자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시었다. 초물방석들을 깔아놓은 다른 화강석의자들과는 달리 그 의자에는 보기에 우아하게 만든 색다른 방석까지 놓여있었다.

한 일군이 그이께 낮이나 밤이나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앉으시면 땀이신 피로를 조금이나마 풀어드리려는 간절한 마음을 안고 건설자들이 수백kg이나 되는 화강석을 채취하여 정성껏 다듬어 특별히 만들어놓은 의자이라고 자랑삼아 설명해드렸다. 그리고는 오리털을 넣고 비단천으로 한뼘두뼘 바느질을 해가며 성의를 다한 소행도 이야기하며 이렇게 간절한 청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 여기서 좀 쉬고 가십시오.》 순간 그이께서는 대변에 안색을 호리시며 이진 옥좌인가 아니면 권좌인가고 물으시었다. 그이께서는 다시금 이진 누를 위한것인가고 하시며 자책감에 싸여있는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는 이런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르시었다.

또 언젠가 완공을 앞둔 인민극장을 찾으신 그이께서 장군님께서 생전에 그 어떤 특전과 특혜도 바라지 않으셨다고, 자신께서 앞으로 이 극장을 공영을 보러 올 때에는 인민들이 앉는 의자에 앉아 공영을 관람하겠다고 하시며 중앙관람석을 없앨때 대해 당부하시었다. 그리하여 그후 개관공연에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시민들로 초만원이 이룬 극장의 1500석중의 한 좌석에 불과한 4월 28번 자리에 스스로 앉으시어 자리를 잡으시고 공영을 관람하시

어름칠을 맞아 특유우거진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 사랑의 새 전설이 수놓아져 온 나라 인민들을 감동시키고있다. 온 나라 인민의 뜨거운 축하속에 제6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했던 전병로병들이 이 훌륭한 온천문화휴양지에서 즐거운 휴식의 나날을 보내고있는 것이다.

그거슨 온천유양에 몸을 잠그고 기쁨과 즐거움의 웃음짓는 전병로병들, 귀빈들을 위해 발전련합기업소의 열판리공도 아저씨 거기에 참가했던 모두가 뜨거운것을 삼키었다.

어제 이뿐이랴. 어느 한 인민군부대의 예술소조공연을 보아주실 때에도 그이께서는 의자를 따로 놓아드리며 앉으실것을 말씀드리는 일군들의 청을 굳이 사양하시고 일군들과 함께 비좁은 건의자에 앉으시어 마지막까지 공연을 보아주시었고 웃음내내리던 날 어느 한 공장을 찾으시어서는 우산을 잠시 받쳐드리시는 일군들에게 모두 비를 맞는데 나 혼자 우산을 쓰면 되겠는가고 나무랄 하시면서 굳이 사양하시었다.

이런분이기때문에 작은 목선과 수수한 배스를 타고 인민들과 병사들을 찾으시고 너무나 평범한 운동화를 신으시고 수천리 먼 길을 달려 인민들을 만나주시다. 이것은 인민을 위해서는 세상에도 들도 없는 가장 훌륭한것을 마련 해주시면서도 자신을 위한 일은 아무리 사소한것일지라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겸허하신 위인적품모를 보여주는 수많은 감동깊은 사실들중의 일부이다.

이렇듯 인민들과 한치의 간격도 두지 않으시는분이기때문에 공화국의 남녀로소 누구나 그이께로 달려가고 그 품에 스스로 걸이 안기고있는것이다. 그이를 만나뵈는 자리에서 갖 태어난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실것을 청드린 녀성비행사도 있고 친부모에 게 매달리듯 그의 손목을 꼭 잡고 기념사진을 찍은 사람들도 헤아릴수 없이 많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겸허하신 성품은 인민을 더욱더 그이께 끌리도록 하고있다. 박영일

송년한 근면이리가 펼친 화복



하늘을 지붕삼고 떠도는 신세 동서남북 바람결에 갈 곳이 없어 찬이슬 잔디위에 쓰러져 울면 어머니의 옛사랑이 다시 그림자

비오고 바람부는 하늘밑에서 팔베개로 꿈을 꾸는 집없는

집 없는 천사

우의 가사는 유명한 시인인 조령출이 해방전에 지은 노래로서 나라잃은 망국민의 슬픔을 담은 가요이다.

동서남북 그 어디를 둘러봐도 갈 곳이 없어 아득히 울려가버린 어머니의 옛사랑을 새삼스럽게 그리며 무서워우는 방랑자는 가요의 서정적구미공간이 아니라 다름아닌 그 시절 조령출자신의 모습이었다.

1913년 자그마한 약방을 차려놓고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가는 한미한 의사가정에서 출생한 조령출은 어릴적부터 시골길을 몸소 걸었다.

4살 되던 해에 부모를 따라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된 조령출은 1921년부터 1년 반 동안 한문서적과 다름없는 보물약고를 다니다가 중퇴하지 않았으며 안되었다.

아버지를 여의고 자식을 키울 힘이 없었던 어머니가 그를 남의 집 양아들로 떠맡긴것으로 하여 조령출은 어릴적부터 친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정을 몸소 느끼고 갈구하며 자라게 되었다.



조령출선생

경고받지 않은 그 체험은 당시 진정한 삶의 보금자리-조국을 잃은 조선민족모두의 심정이었다.

1945년 8월 15일을 조령출은 서울에서 맞이하였다. 출리 민족이 일제의 악독한 총알의 폭탄에서 신을 하다가 해방된 그 환희의 날도 그는 그에게 있어서 곧 조국일체를 때려부시고 삼천리금수강산을 찾아오신 절세의 여주자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로 가슴이 울렁던 날이였다.

공화국의 품에 안겨

인민들이 사랑하는 민요, 가극과 더불어

무대위에 정중히 형성한 첫 작품으로서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지울수 없는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조령출은 해방은 되었어도 인민대중의 진정한 자유와 리상이 말할당하는 남조선 땅은 여전히 자기의 진정한 집이 아니라라는 것, 결국 자신은 어찌도 멀리는 마음을 걸잡지 못하였다.

그 이름 불러주시며

마침내 작가는 1948년 8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 남조선대표로 선출되어 38°선을 넘어 평양으로 왔다.

어버이수령님께서 38(1949)년 12월 7일 새 조국건설을 령도하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그가 창작한 가극 《꽃신》을 보아주시었다.

시종일관 깊은 관심속에 가극을 보아주시는 수령님께서는 조령출을 비롯한 창조성인들에게 작품이 아주 좋다고, 동무들이 많이 노력했기때문에 성과가 많았다고 하시며 그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서, 민족적금지감을 훌륭히 표현하고있다.

그가 가사를 짓고 그의 안해인 김관보가 편곡한 민요 《모란봉》을 들려주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노래를 아름다운 선율을 가진 노래라고, 그런 노래를 많이 지어야 하겠다고 높은 평가를 주시었다.

민요 《모란봉》은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을 훌륭히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속에서 널리 불려지면서 사랑을 받고있다.

조령출은 종래의 민요를 현대적미감에 맞게 더욱 빛내일 생각이었는데 해방전 한탄의 상징으로 된 가사들을 새로운것으로 창작하였다.

《황금산 백도라지》, 《도라지리랑》, 《법성포노래》, 《양산도》 등이 다 그런 민요들이다.

오늘도 영생의 모습으로

조령출의 창작활동은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지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더욱 활짝 꽃피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가극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밀림이 이야기하라》, 《금강산의 노래》, 《맑은 태양아래에서》 등 수많은 가극창조사업에 조령출을 내세워주시었다.

가지고 새로운 작품창작에 온갖 심혈을 다 바치었다.

그가 인생의 말년에 창작한 작품은 가사 《어머니 우리당이 바라다면》이다.

《어머니 우리당이 바라다면》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끝없는 충정의 마음, 절대불변의 의지적강정을 환희롭게 숭엄한 양상에 담아 노래하고있는 조령출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다.

노래는 작가가 79살의 고령의 나이에 자기의 창작을 총화하며 얻은 진리와 신념을 집약하여 시화한 의의있는 작품이었다.

고령의 몸으로 황일의 너정영을 김정숙어머님을 형상한 희곡 《년월》을 구상하던 그가 사망한것은 1993년이었다.

작가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못내 애석해하시면서 조선문학창작자 작가 조령출동무가 오로지 사망하였습니까, 그가 잘 지냈으면 좀 더 살아있을수 있었겠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가까운 동무를 잃었습니다. 내가 그를 마지막으로 만나본 것이 영화예술인들이 출연하는 경희극 《한마음 한모습으로》를 볼 때였습니다라고 하시면서 가극 《맑은 태양아래에서》를 만들 때에 노래를 받드시 놓아야 하겠다고 은정깊은 교시를 주시었다.

음악의 천재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속에 이 가요는 주체시대의 명곡으로, 가극의 주체곡으로 해마다 4월의 봄명절이면 불려지면서 조령출의 노래, 위인정충의 노래로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작가를 만나실 때마다 그의 귀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시며 왜 오사이가 보이지 않았는가, 예에 아픈데는 없는가, 조선생은 잘지 말아야 한다고 다정히 격려해주시며 일흔번째 생일을 맞은 그에게 생일상도 마련해주시었고 어드레가는 인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살기 위한 산삼을 보내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위대한 민음의 품, 의리에 넘친 사랑의 품에 안겨 작가는 80고령을 눈앞에 둔 때에도 왕성한 창작적의욕을 본시기자 유금주

창작활동을 하던 때의 조령출선생과 이름있는 독창가수였던 부인 김관보

버리지 못하는 동족대결의 악습

남조선군부가 동족대결의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국방부 장관이 《유엔군사령부》창설 70년을 계기로 남조선장점 미군사령관에게 《축사서신》이라는 것을 보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지난 조선전쟁에 참가했던 고용병들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을 모아놓고 《6.25전쟁 70주년 유엔군참전의 날》 기념식과 같은 각종 광대극도 베풀어 벌여놓았다고 한다.

이 3년간에 걸치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조선의 거리와 마을, 공장과 농촌이 여지없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침략자들이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공화국북반부지역에서 감행한 야수적인 대중적학살만행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당시 신천군에서만도 군내 총인구의 1/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학살되었다.

그때로부터 세월이 흘러갔지만 전쟁이 남긴 상처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가하였던 어중이떠중이들을 모아놓고 그 무슨 《기념행사》라는 것을 벌여놓는 것은 침략자들의 죄행을 미화분식하고 수치스러운 침략의 역사를 가리워보려는 해피망측한 추태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남조선의 군부호전세력이 이미 없어졌어야 할 전쟁의 유물을 싸고도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어떻게 하나 의세를 등에 업고 부침야망을 실현해보자는 것이다. 오늘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동족대결기도는 갈수록 로골화되고 있다.

최근 남조선호전광들이 새로운 탄도미사일개발에 열을 올리는 한편 각종 첨단무장장비들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첨단무장장비개발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우려한 반입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것이다.

《한미실무그룹 해체,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주로총, 《한국로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중공동행동, 《한국조직원대》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가 지난 7월 25일 미국대사관 앞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3722개 단체 비상시국선언 발표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에서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한미실무그룹을 해체하고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지 또는 폐지할 것을 우리는 강경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미국대사관 앞에는 《미국은 들어라, 한미실무그룹 해체하라,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대형현수막이 펼쳐졌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한미실무그룹 해체!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7.25법국민행동》이 진행되었다.

《7.25법국민행동의 날》은 서울뿐 아니라 대전, 세종, 충남, 전북, 강원, 대구, 울산, 부산, 경남 등 많은 지역에서 현수막행진과 평화의 집정다리, 시국대회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열렸으며 광주, 전남에서는 이보다 앞서 7월 23일 평화행동이 진행되었다.

본사기자



내외호전세력들의 전쟁연습행동을 반대하여 투쟁을 벌이는 남조선인민들

남조선의 《미래통합당》이 못된 버릇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때때로 그중의 하나입니다.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나도 그래, 이전 보수 《정권》의 《경제계약》의 후과로 빚어진 물가상승이나 일자리문제와 같은 경제문제, 민생문제도 무조건 《누구 탓》이라고 우겨댁니다.

고작 한주일정도 《단식》을 하면서 물레 영양제주를 맞았는지, 임신부까지 동원해서 사람들의 접근을 방지하고 취침에 방해되지 않게 소음을 방지한다고 법석을 떨어 민심으로부터 뒤흔어 놓고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것은 《무조건 반대》에 《다치고 퇴장》뿐이 아니라 앞으로 그 100여건을 토의하면 1000번이나 싸우고 퇴장하는 꼴이나 지루해서 어떻게 봐주겠습니까. 한살 더 먹으면서 귀부러 막혔는지 민생을 살리라는 민심의 말귀도 알아듣지 못

고일어나 퇴장하는 방법을 미리 다 준비하는 모양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변신》을 한다면서 당명도 바꾸겠다고 웅모를 하는 모양인데 이 기회에 하나 추천할까 합니다. 《미래퇴장당》!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퇴장하고 정치에서 퇴장하고 민생에서 퇴장하고... 나아가서 사회에서 퇴장하고 남조선땅에서 퇴장하면 인민들이 한결 편안해질 것이 아닙니까. 미리 퇴장하는 것도 편함을 찾습니다.

얼마전 남조선의 《미래통합당》이 《세월》호유가족대표들과의 비공개면담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지금껏 전신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유가족들의 면담요청에 대구 한번 하지 않던 보수패당이 이번엔 면담에 응한 것은 오이발에 가지가 달렸다는 것만 큼이나 회한한 일이라 해야 할 것이다. 하기가 별의별 치사한 짓거리로 민심의 광대극을 연이어 연출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이고 보면 요즘한 일이 무슨 대수겠는가.

불을 즐기는 부나비들은 불에 타죽기 마련이다. 동족대결에 환장한자들이 갈 곳이란 파멸의 구렁텅이 밖에 없다.

방해책동때문이다. 그러한 실례는 허다하다. 이미 이전 보수 《정권》시절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청와대》의 내부문건들을 불법적으로 조작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추미겨울

문제는 면담과정에서 드러난 보수패당의 나쁜 속내이다. 이번 《세월》호유가족들은 《미래통합당》에 《세월》호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 진상규명해조, 망발자제 등 3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바다속에 침몰되었던 《세월》호는 떠올랐지만 그 진실은 아직도 어둠속에 묻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를 두고 남조선정권에서는 《도적이 제발 저런 격》, 《아니 댈 굴뚝에서 연기나겠는가》 등의 비난과 조소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보수패당은 저들이 쏟아낸 망발에 대해서 《실수가 많았다》, 《본의가 아니었다》, 《절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노족을 떨려서 도 정작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의 핵심인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관련해서는 《결정하기 어렵다》며 도리머리를 흔들었다고 한다.

실은 아직도 어둠속에 묻혀 있다. 6년세월 차디찬 눈비속에서도 쉬임없이 이어간 《세월》호참사유가족들과 남조선인민들의 진상규명투쟁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라가 공인하듯이 보수패당의 끈질긴

김창일

《미래퇴장당》

저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거리밖에 뛰쳐나가 고향을 지르고 머리를 뺨박 깎지 않으면 세상 난 아이들 뺨뚱부리듯 밥 안 먹으래 하고 나자빠집니다.

이른바 정치를 한담시고 벼타이를 매고 《국회》 등을 드나들지만 노는 꼴은 꼭 꼴콜러개보다도 못하니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을 가리켜 《발목잡기정당》, 《떼쓰기정당》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먹고 놀고 싸지만 미래통합당은 국회에서 먹고 놀고 싸운다》고 놀려댈 것입니다.

마당에 표절을 앞두고 《미래통합당》만 일제히 퇴장했다지 않습니다. 《혁신》, 《쇄신》으로 《빠가지 바꾸겠다》더니 때때로 방법을 먼저 바꾸었다. 민생이든, 《COVID-19》이든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퇴장합니다.

《미래통합당》이 누구의 《실정》을 두지고 따지고 비판하는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10여개나 만들었다더니 아마 거기서 《국회》 운영매 말말에 비꼬는 소리만 내뱉고는 일제히 들

해, 일하는 《국회》를 좀 보자는데도 제 맘에 맞지 않는다고 뺨뚱부리면서 차고 나가는 것밖에 몰라, 이례총 《혁신》을 한 다음, 《정책장정》을 바꾼다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누구의 《실정》을 두지고 따지고 비판하는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10여개나 만들었다더니 아마 거기서 《국회》 운영매 말말에 비꼬는 소리만 내뱉고는 일제히 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는 남조선인민들

김정혁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일본이 과거 조선사람들을 대량적으로 학살한 것은 세월이 흘러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귀족같은 대범죄이다. 일본이 얼마나 야수적으로, 잔인무도하게 조선사람들을 학살했는가를 보여주는 피비린 《간도토벌》 하나만을 놓고서도 잘 알 수 있다.

4000여명에 달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간도땅에 짐을 풀고 간도 땅을 일제의 탄압을 피하여온 조선독립군들을 비롯한 애국자들도 많이 집결되어 있어 반일기운이 강한 지역으로 되고 있었다. 하여 일제는 간도땅의 조선사람들을 대량학살하기 위해 이른바 《훈춘사건》을 조작하였다.

이것이 바로 피의 력사로 알려진 《경년토벌》 혹은 《간도대토벌》로 알려진 훈춘대학살사건이었다. 일제의 인간도살행위는 훈춘뿐만 아니라 간도 땅 그 어디에서나 감행되었다. 일제야수들은 조선사람이

사는 부락이라면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모조리 《토벌》하여 집과 학교를 불태워버렸으며 집사들이 무참히 학살하였다. 일제는 간도 땅 이르러는 곳마다에서 조선사람들을 사지를 찢어죽이고 목과 팔다리를 도막내어 죽이었고 집 단적으로 생매장하여 학살하였다. 지어 일제는 친친란만한 어린이들을 부모의 품에서 빼앗아 불붙는 집에 던져죽이는 귀족같은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영원한 속죄》라는 제목의 조형물은 일본군성노예상과 그앞에 무릎꿇고 머리숙여 사죄하는 남자상으로 되어 있는데 남자상은 일본수상 아베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한다. 인류사에 인류를 찾아볼수 없는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회는 고사하고 표몰만 한 반성도 없는 일본당국에 대한 신랄한 야유이고 우리 민족과 인류의 엄한 경고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영원히 속죄하여야 한다

한미의 사죄도, 한권의 배상도 없이 과거청산이 끝났듯이 반인륜범죄를 돌아내며 갚은 오그 랑수를 쓰고있는 《조선인민을 발견하면 돌을 던지라》, 《조선

죄배상할 대신 일본군성노예가 아니라 《매춘부》라고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정부금의 사죄대신 《군의 권여》라고 얼버무리었으며 남조선의 이전 보수 《정권》에 몇푼의 돈을 던져주기는 그것마저도 배상이 아니라 《기부금》이라고, 《잃은것은 10억불뿐》이라고 떠벌인 것이 바로 아베정권이다.

《속일기》를 뻔뻔스럽게 국제무대에 등장시키고 침략과 전쟁을 합리화하는 헌법에 그악스럽게 매달리고 있으니 이제 일본이라는 몸통이 《대동아공영권》 망상, 조선반도와 아시아 대륙제정의 야망으로 쪼물거리는 빈대기가 되어 군국주의 부나비들을 부화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언젠면 일본이 올바른 지성의 높이에서 사고하고 내다볼 줄 알게 되었는지. 《영원한 속죄》의 조형물만 놓고 보아도 그것이 조선민족의 목소리이고 세계 일본에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반성하는 기미라도 보였더라면 철이 좀 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일본의 언행을 보아서는 언젠가도 정치난쟁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것 같지 않다.



본사기자 주광일

리서철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들어쥐고

중평땅에 일떠선 현대적인 납새온실농장

공화국의 북변땅에 훌륭히 일떠선 중평납새온실농장에 호젓한 납새작황이 펼쳐졌다. 지난 2월에 첫물납새를 수확한데 이어 지금까지 오이, 호박, 배추, 도마도물 비롯한 갖가지 맛있는 납새들을 수확하여 함경북도인민들에게 보내주었다.

철거시키고 그 자리에 함경북도인민들을 위한 대규모의 납새온실농장 2개 단지를 꾸밀데 대한 웅대한 구상을 펼쳐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고 현저로 달려나온 군인건설자들은 골합잡는 공격정신으로 공사를 힘있게 밀고나갔다.

200정보의 총부지면적에 성토공사량만 해도 180만m³에 달하고 320동의 현대적인 납새온실과 590여세대의 살림집 등을 일떠세워야 하는 건설은 어렵고 방대하였지만 군인건설자들은 공정별계획을 빈틈없이 맞물리고 효율적인 건설공법들을 받아들여 공사속도를 높여나갔다.

납새온실농장건설에 달려나간 군인건설자들은 400여만장의 블로크를 찍고 수십리의 도로를 번듯하게 닦아 놓아 기공공사를 성과적으로 다그칠수 있는 돌파구를 열

어놓았다. 또한 강추위속에서 언 땅을 깨내면서 수만m²의 기초 굴착을 단숨에 해제끼고 각종 관류의 설치조립과 지하 시설물공사를 성과적으로 계속하였다. 자기의 힘으로 온실농장을 세상이 보란듯이 일떠세울 열의를 안고 군인건설자들이 1100만장의 흙벽돌과 블로크를 생산하여 수백동의 온실 축열벽축축을 40여일만에 완성해갈 때 수경재배와 토양 재배를 배합한 반공룡식2중 박막온실건설을 맡은 군인건설자들은 트라스만곡기를 현장에 전개하고 수만개의 원형트라스제작용을 신속히 보장하였다.

중평납새온실농장마을건설에서도 사회주의농촌문화주택건설은 설계상, 공법상특성이

해외동포와 조국

물인 한빛이 돋보인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발행하는 《백두-한나》(2020년 6월호)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선전국 김영희가 쓴 글이 실려있다. 필자는 글에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김립지부에서 오랜 동안 공민들의 사업을 성실성의

지대로 지정되었을 때 동포들의 생활을 진심으로 도와 주었다. 이와 같은 따뜻한 동포애는 뒤에서 묵묵히 지지하고 도와주는 남편 박영모선생의 지지와 방조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박영모선생은 항상 안해 김련원동포와 함께 동행하며 안해의 사업을 성실성의로 도와주고있다. 하나로 동진 화복한 부부로서 공민가정의 본보기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것 같다. 조국을 선전하는데서도 김련원부부는 재중동포들의 자랑스러운 모델로 되고있다. 우리는 김련원동포가 지난 기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조국건설을 강화하고 조국을 돕는 길에서 우리와 손을 잡고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련원동포는 중요계기마다 김립지부에서 진행하는 행사들과 김립지부에서 진행하는 행사준비사업을 적극 도와주고있는가 하면 어머니가 병환으로 앓고있는 지금 어머니를 대신하여 열심히 뛰고 있다. 나이도 젊고 사회활동능력도 강하여 김립지부동포들속에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있다. 또한 김립지부회화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편의를 도모해주고있다. 특히 《COVID-19》사태로 인하여 김립지가 고위험



어린이 학습, 어린이 제품 품과 희망을 심어주는 민들레학습장

아이들의 고운 꿈을 심고 날리는듯 한 우산모양의 작은 꽃씨들, 그우로 펼쳐진 푸른 하늘... 공화국의 양치바른 산기슭이나 들뜬, 길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민들레이다. 사람들에게 고향과 어린시절을 추억하게 해주는 민들레가 오늘도 아이들의 학습장에 곱게 그려져 새 지식과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있다.

학습장들을 생산하고있다. 공장에서 생산한 민들레 학습장들은 도시와 농촌, 두메산골과 섬마을에 이르기까지 각지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빠짐없이 안겨지고있다. 본사기자

평양에 현대적으로 일떠선 민들레학습장 공장에서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연령심리학과 과목별특성에 맞게 각이한 용도의 특색있는



《정면돌파전을 벌리고있는 조선》

최근 어느 한 나라의 웹 사이트에 《정면돌파전을 벌리고있는 조선》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글의 요점은 오늘 조선에서 전진을 저어하는 모든 난관을 뚫고나가기 위한 정면돌파전이 합쳐져 벌어지고있으며 세계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 전망에 대해 주목을 돌리고있다는것, 분석가들은 한결같이 정면돌파전의 주도권은 확고히 조선의 손에 쥐여졌었다는 평을 내리고있다는것이다.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분석, 립중환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을 단호한 정면돌파전으로 짓부셔버리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조선은 주권관철조건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정면돌파전을 벌릴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였다. 이 새로운 로선의 제시는 조선인민이 생명처럼 여기는 존엄을 절대로 팔지 않을것이며 자기의 힘에 의거하여 나라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것임을 다시한번 국

제사회에 실증해보고있다. 조선인민은 력사에 류례없는 환경속에서도 자력으로 생존하고 적을 쳐물리치며 난관을 뚫고 전진과 권리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기어이 자력부강으로 국가의 존엄을 사수하며 제국주의를 때려부서지려는것이 조선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이와 같은 점에 주목하여야 할것이다. 왜냐하면 자주정신을 구현한 인민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기때문이다. 가혹한 제재속에서도 조선에서는 지난해에만도 삼지연 시가 인민의 리상도시, 별천지로 꾸러지고 양덕은천문화휴양지와 중평납새온실농장 양묘장이 훌륭히 건설되었다. 이것을 놓고보아도 조선인민의 정신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똑똑히 알수 있을것이다. 결국 정면돌파전의 주도권은 조선에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건국초기부터 자기의 힘에 의거하여 자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왔으며 수십년동안 그 기초를 쌓아왔다. 지금 조선은 국내외로와 자원, 자기의 기술에 의거하

민민들이 선호하는 《은방울》손품금

손품금은 모든 악기들중에서 가장 널리 대중화된 악기라고 말할수 있다. 학교와 일터, 극장과 가정에서 이르기까지 파급된 범위가 대단히 넓다. 공화국에서 《은방울》손품금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높다. 음악애호가들과 전문가들속에서는 《은방울》손품금이 풍량의 기계적정치가 민활하고 음색이 부드러우며 전체적인 울림이 고운것으로 하여 음악형상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훌륭한 악기라고 한결같이 평가하고있다. 《은방울》손품금은 국내에서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있다. 2018년 10월 중국의 상해에서 진행된 국제악기전람회에서는 여러 나라 전문가들은 《은방울》손품금의 기술적 지표들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온 100여개의 악기제작업체들이 참가하는 규모가 큰 전시회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은방울》손품금을 직접 연주해보면서 세계적으로 이름난 손품금들에 못지않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로씨야, 유럽 등에서 진행된 여러 박람회에서도 정확한 음정과 독특한 음색, 매력적인 외형으로 하여 큰

인기를 끌고있는 《은방울》손품금은 평양악기공장에서 제작되고있다. 평양악기공장은 나라의 악기제작업이 빈터나 다름없던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나날에 창립되었다. 악기제작공업의 모체, 기둥이 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속에 평양악기공장은 자그마한 제작소로부터 오늘날은 수십여종의 다양하고 질 높은 손품금을 생산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춘 글지의 악기제작공장으로 자라났다. 평양악기공장에서는 《은방울》손품금을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명제품으로 더욱 완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공장에서는 기능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지구, 형태 등을 새롭게 창안 도입하여 손품금조립의 정밀도를 높이고있다. 이와 함께 손품금의 외형을

이루는 색채판의 무늬를 새롭게 하여 제품의 문화성을 높였으며 열변음기와 함께 리듬변음을 설치하여 연주자들이 연주중에 자유롭게 음을 변환시켜 보다 훌륭한 예술적형상을 창조할수 있게 하였다. 공장에서는 손품금의 품을 울려 소리빛깔을 더욱 맑게 하였으며 선률합성음정체계를 도입하여 악기소리의 정확도를 높이고 건반도 유연하게 하여 연주자들의 주법과 형상력을 더욱 풍부히 할수 있게 하였다. 공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악기제작에 필요한 현대적인 기계설비들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하여 손품금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사람들의 문화정서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친근한 길동무인 《은방울》손품금, 멋진 형태와 아름다운 음색으로 하여 인민들이 선호하고 수요가 높은 손품금을 더 많이, 더 질 높게 생산하기 위해 공장의 종업원들은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김 철

평안산원,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로동자합숙, 평양화장품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비롯하여 여성들이 참다운 권리와 삶을 누리려가도 록 온갖 조건과 혜택을 충분히 마련해주고있는 공화국이다. 공화국의 여성들은 사회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에게 참다운 권리를 보장하는것은 사회의 진보와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공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성들에게 남자들이와 똑같은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그의 실질적인 행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74년전인 1946년 7월 30일 여성들이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남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것을 밝힌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이 발표됨으로써 여성들은 그 어떤 차별도 받음이 없이 자주적이며 행복한 삶을 누리갈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비롯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면에서 여성들의 평등한 권리를 철저히 보장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권리보장법》에 의하여 여성들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담보되고

있다. 평안산원,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로동자합숙, 평양화장품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비롯하여 여성들이 참다운 권리와 삶을 누리려가도 록 온갖 조건과 혜택을 충분히 마련해주고있는 공화국이다. 공화국의 여성들은 사회

있는 여성들도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 평범한 여성들이 영웅으로, 인민적영웅인으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박사로서, 나라가 다 아는 시대의 전형, 로력혁신자로 되고있는 공화국이다. 결코기엔 소박하고 수수해보이는 그들의 모습에서 자

의 세계가 아닐수 없다. 세상에 다시 태어날수만 있다면 조선의 여성으로 태어나고싶다.》고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 하기에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 힘과 열정, 지혜를 바쳐가는 공화국여성들의 모습을 감지 높이 노래하는 《사랑하시

그뿐이 아니다. 성폭력행위가 피리를 물고 일어나 사회질서를 일으키고 여성들의 인격과 존엄이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 성추문과 학대행위의 희생자로 되어 울분을 터치고 여성이라는 한가지 리유로 차별되어 일차에서 쫓겨나고 가정마저 포기하고 있다. 여성으로 태어난것이 죄 아닌 《죄》로 되어 온갖 사회악과 불평등에 시달리며 못해 수많은 여성들이 절망에 빠져 범죄와 타락의 길로 굴러떨어지고있는것이 바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는 여성들의 처지이다. 얼음우에 떨어진 씨앗이 꽃으로 필수 없듯이 여성차별, 여성학대의 병폐가 만연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여성들이 존엄과 권리를 잃고 시들어갈 때 사회의 당당한 한성원으로서는 값높고 보람찬 삶을 누리려는 공화국의 여성들의 모습은 참으로 자랑스럽다. 리승건

참다운 권리와 삶을 누리며

의 한 성원으로, 안해로서, 어머니로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한가정을 알뜰살뜰 가꾸고 자식들을 나라의 기둥으로 키우며 영애군인의 일생의 길동무가 되어주고 부모됨은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는 미덕의 주인공들이 공화국의 여성들이다. 조국보위초소들과 거창하게 일떠서는 창조물들에 깨우친 량심과 성실한 맘을 바쳐가고

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가사우에 국사를 놓는 이 땅의 여성들의 훌륭한 정신도 덕적품도, 사회와 집단에 밝은 빛을 주며 거기에 보람과 행복을 찾는 이 나라 여성들의 불같은 헌신을 느낄수 있다.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외국의 한 인사는 《여성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이 없이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는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는 서방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환상

라. 《우리 집사람》과 같은 시대적명품들도 태어날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어느 사회에서나 여성들이 다 아름답게 피어날수 있는것이 아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여성친선, 여성학대, 여성차별 풍조가 만연되고 여성범죄가 성행하여 끝치거리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키우는것이 부담으로 되어 출산을 기피하고있다고 한다.

의 세계가 아닐수 없다. 세상에 다시 태어날수만 있다면 조선의 여성으로 태어나고싶다.》고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 하기에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 힘과 열정, 지혜를 바쳐가는 공화국여성들의 모습을 감지 높이 노래하는 《사랑하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조선비단

조선비단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을뿐 아니라 가볍고 질기며 아름다운 무늬와 부드러운 손맛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비단은 누에고치에서 풀어난 명주실로 짠 자연섬유이다. 기록에 의하면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누에를 순화시켜 뽕누에를 치기 시작하였고 고대시기에 누에서 실을 뽑아 비단옷을 해입었다고 한다.

황해북도 봉산군 지담리유적을 비롯한 신석기 및 청동기시대 유적들에서는 누에를 형상한 질그릇들이 발굴되었는데 이것은 이미 원사사화말부터 누에치기가 진행되어왔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비단은 그후 천의 짜임과 무늬, 색깔, 가공방법을 달리하여 여러가지 종류로 생산되었으며 다른 천들에 비하여 화려하고 아름다와 고금웃감으로 리용되었다.

세나라시기에 이르러 누에

치는 더욱 성하였으며 매우 섬세하고 높은 수준의 직조기술에 의해 아름답고 화려한 무늬를 가진 여러가지 고급비단들이 생산되어 이웃 나라들에 전파되었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전국각지에는 뽕이 많이 나고 물이 좋은 곳마다 이름난 비단생산지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가운데서도 특히 평안도의 념변, 성천, 함경도의 금야, 장평, 고원, 리원, 강원도의 철원, 황해도와 수안 등에서 생산된 비단이 유명하였다.

《어아주》(물고기의 이발과 같이 하얀 비단), 《조하주》(아침노을과 같이 아름다운 색을 내는 비단)과 같은 비단들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 널리 수출되었다.

우리 선조들이 생산한 비단천들은 질기며 가볍고 아름다울뿐 아니라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스하였다. 또한 뽕실이 커서 잘 구겨지지 않는 성질과 함께 몸에 닿는 느낌이 부드러워 옷감으로 리용되었다.

우리 선조들이 생산한 비단가운데는 예로부터 황금에 못지 않게 귀하게 여겨

참매의 인공번식 성공



공화국의 동물학연구자들이 극조 참매를 인공번식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 7월 16일 국가과학원 동물학연구소에서 인공번식의 방법으로 키운 2마리의 참매가 등지우를 날아올랐다.

이 참매들은 지난 6월 7일에 알에서 깨어나온 것들이다.

한편 6월 1일에 알에서 깨어나 이후 엄지가 있는 등지에서 키우고 있는 1마리의 참매는 지금 자유로이 날아다니고있다.

인공사육조건에서 키운 엄지가 난 알에서 깨어난 새끼 참매가 등지우를 날아올랐다는것은 참매의 인공번식에서 성공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참매의 인공번식기술을 확립하여 전국에 퍼지기 위해 국가과학원 동물학연구소와 중앙동물원 동물사양관리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수년전부터 협동연구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국가과학원 동물학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참매보호구로



여름철 건강관리에서 주의할 점

기름기가 적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식욕을 떨어뜨리므로 될수록 적게 먹고 대신 기름기가 적고 소화가 잘되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한다.

몸을 움직여야 한다. 여름철에는 몸이 나른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공기조화가 설치된 방에 오래 동안 앉아있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몸을 놀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되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한것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수 있다.

그러므로 과도한 운동은 피하더라도 아침이나 해가 진 다음 운동을 적당히 하는것이 좋다.

몸을 지내 빨리 식히지 말아야 한다. 여름철에 외출하였다가 돌아오면 사람들은 더위를 가시기 위해 찬물을 끼얹기 좋아한다.

달아오른 몸을 지내 빨리 식히면 땀구멍들이 갑자기 수축되면서 오히려 열을 몸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게 된다.

또한 뇌부위의 모세혈관들이 갑자기 수축되면서 뇌압이 급부족되어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쇼크까지 올수 있다.

그러므로 땀을 다 닦아내거나 땀이 마른 다음 목욕을 해야 한다.

물을 급하게 마시지 말아야 한다. 땀을 많이 흘렸다고 하여

민족회화계의 재사들과 그 유산

사실주의 풍경화가 리인문

리인문은 18~19세기 초 대표적인 사실주의 풍경화가이다.

리인문은 당대의 사실주의 화가인 김홍도와 실학자의 한사람인 박제가와 가깝게 지냈던것으로 하여 그들의 영향하에 모방주의적인 창작태도에서 벗어나 사실주의 풍경화작품을 창작하였으므로 당시의 회화에서 김홍도와 쌍벽을 이룬만큼 유명하였다.

리인문은 풍경화와 함께 인물화, 화조화들도 많이 그렸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강산무진도》, 《질은 록음아래서》, 《사공》, 《김매기》, 《포구》 등이 전해지고있다.

《사공》은 당시 사공들의 생활의 한 단면을 반영한 작품이다.

작품에는 달뜨는 초저녁 갈대우거진 강변에 쪽배를 대어놓고 노를 배게삼아 누워 잠든 사공의 모습이 그려져있다.

한말을 이마우에 얹고 배꼽까지 드러내놓은채 시름없이 단잠에 든 사공의 모습에는 소박하고 근면한 근로인민의 내면세계가 잘 나타나고있다.

《사공》(리인문 작)



순단관

◆장마 만난 미장쟁이.
장마를 만나 일을 벌일수 없는 미장쟁이처럼 때를 잘못 만난 사람을 비겨 이르는 말.

◆장사말가운데 혼사말.
이야기가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번져나가는 경우에 이르는 말.

◆나막신 신고 대동배를 쫓아간다.
걸는데 불편한 나막신을 신고 빨리 가는 대동배(조선봉건왕조시기 인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던 대동미를 싣던 배)를 쫓아간다는 뜻으로 되지도 않을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모양을 빈잔조로 이르는 말.

사화

왜적을 치자 (2)

글 김정민, 그림 리성일

높은 처음부터 반말이었다. 한갓 오장파위의 반말질에 기홍은 대뜸 분기가 치밀었다.

「나 먼저나 라겠소。」 하고 뇌까린 왜병정은 기홍의 승낙은 기다리지도 않고 인력거군의 어깨를 왈살스럽게 떠밀었다.

「나리!」
높은 인력거군은 간절한 눈길로 기홍을 쳐다보았다. 그 눈빛이 무엇을 하소한다는것을 기홍은 모르지 않았다.

《바가야로!》 하는 소리와 함께 왜병정은 인력거군의 면장을 후려갈렸다.

《어쿠!~》
높은 인력거군은 얼굴을 싸워었다.

조금뒤 손을 뻗 그의 얼굴에서는 피가 흘렀다.

피호르는 그의 얼굴에는 무엇이든 형언할수 없는 고뇌의 표정이 어렸다.

기홍은 저도 모르게 칼자루에 손이 갔다.

《아서요, 장부의 검을 이 런데서 뽑지 마세요.》
향화가 그의 손을 잡았다. 왜병정은 인력거군을 깨물듯 끌고 가버렸다.

권기홍의 심장은 모옥과 수직과 환벽로 아프게 울려었다.

한양거리의 분위기는 어느 때없이 살벌했다.

아침일찍 종로에는 난데 없는 보루가 쌓여지고 대포를 쏘아놓았다. 상점문들은 닫아걸렸고 곳곳에 누런 군복에 빨간 장화를 신은 왜놈헌병들이 버리고있다. 사람들의 성분출입을 금지시켜 인척기 끊어진 거리로 총대를 뻗 왜놈군대가 먼지를 일으켜 지나갔다.

(이놈들이 오늘은 또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이러는가?!...)

왜놈들이 들어오면서 어느 하루도 편한 날 없지만 이 아침의 류타른 생각에 권기홍은 불안과 긴장으로 신경이 날카로와졌다.

병영은 더욱 뒤숭숭했다. 장교들은 물론 일반병사들의 얼굴에까지 장미철하늘같이 침울한 표정이 어렸다.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지 왜놈들이 조선군대를 해산시키려 한다는 소문이 퍼졌던것이다.

이 뜻밖의 말을 들은 권기홍은 가슴속에 무거운 납덩이가 떨어지고 발발이 흔들리는듯싶은 착각을 느꼈다.

(군대를 해산하다니?! 군대가 없는 나라도 있는가?)
권기홍은 도대체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다. 우리 민족사에 또 하나의 치욕으로 수록될 사변이 꾸며지고있는줄 그가 어찌 알았으랴.

어제 밤(1907년 7월 31일) 조선정부의 총리대신직을 차지하고있는 친일매국역적 리완용은 조선침략의 흉악한 원흉인 조선통감 이등박문을의 부름을 받고 그의 처소로

8월의 절기에는 립추와 처서가 있다. 립추는 가을이 시작된다는 뜻이며 처서는 여름더위가 가서지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이 시기는 찌는듯 한 무더위가 가서지기 시작하고 서늘한 바람이 불며 농작물 등이 무르익는 시기이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 시기에 풀과잡이를 하거나 새나 짐승의 피해를 막을 목적으로 논밭에 허수아비를 세웠고 다음해농사를 위해 풀베기도 진행하였다.

그런가 하면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김장용담새를 싣고 가꾸는 일도 매우 중요시하였다.

이 시기에 우리 선조들은 다양한 민족무용과 민속놀이를 즐겨하였다.

대표적인 춤으로서는 어깨춤과 손벌춤, 두레놀이복춤을 들수 있다.

이 시기 진놀이와 가마전 놀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민속놀이도 널리 진행되었다.

진놀이는 상대편의 진을 어느 편이 먼저 점령하는가를 겨루는 놀이이고 가마전 놀이는 기마수로 선정된 한 명의 아이를 여러명의 아이들이 받쳐올리고 상대편의 기마수를 공격하는 놀이로서 아이들속에서 즐겨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8월절기의 계절적특성에 어울리는 수단을 비롯한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수단은 찹쌀 또는 흰쌀, 찰수수가루 등을 반죽하여 밤알만 얹어 건조시켜 찹쌀에 찻을 넣어 끓여 먹었다.

올해의 립추는 8월 7일이며 처서는 8월 23일이다.

피차일반

옛날 시장에 들러 닭알을 사려던 녀인이 대뜸 성을 냈다. 《닭알값이 너무 비싸요. 내가 하루종일 일한 값보다 더 비싸니...》

그러자 닭알을 파는 녀인도 지지 않고 대꾸했다. 《그래 어쩔단 말이요. 우리 닭도 이 일을 맡고있고 은 하루를 바쳤어요.》

《아직두 뭐가 미흡하오?》
《통감도 모든 일은 빈틈없이 튼튼히 해야 한다고 하신지 않았습니까. 그래 만약 시...》 하며 리완용은 무릎 꿇음으로 나앉아 가살을 피웠다.

《만약시 병정놈들이 해산을 거역하고 폭동을 일으킨다든가 한양장안의 무지한 백성들이 불순할 때 에-그를 진압할것을 통감께 의뢰한다는 우리 황제의 명령도 또한 받아두는것이...》
《그건 넘려마오. 매일 새벽이면 하세가와군이 한양을 군대와 대포로 둘러싸려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 알고 물러가겠소이다.》
《그렇게 하시오. 동양평화를 위해 성의를 다하는 총리의 가혹한 심정에 대해서는 내 친황제에게 따로 보고 하리다.》
이처럼 상전과 주구의 공모 밑에 조선군대해산날자는 8월 1일로 정해지고 폭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왜놈군대우두머리 하세가와가 그것을 진압하기로 약정되었던것이다.

아직 이런 막후총정까지 알지 못하는 권기홍은 울렁거리리는 가슴을 진정할수 없어 대대장방으로 갔다. 《자네도 출근했나?》